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게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식목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추수감사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38(통52). 햇빛을 받는 곳마다

♣ 공동기도

자비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 아침 청파교회의 온 교우가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돌아보니 걸음마다 은총이었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너무 빠른 속도로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멈추어 서게 해 주십시오. 욕망의 질주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게 해 주십시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웃의 고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올바른 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위로의 말씀 사58:11,12

♣ 교 독 문 106. 감사절(2)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응 답 송

찬 양 589(통308).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성경봉독 레23:39-44

찬 양

말 씬 감사, 삶의 열셋말

거듭기도

- 찬 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함께
- ♠ 봉 헌 (제단 앞에 나와서)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는 삶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일과 모든 관계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우리의 삶이 왜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애달파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작은 것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찬양의 가을걷이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 조관행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최문희 선생	박제림 학생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강순배 권사

11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곽상준 정현숙 백성례 최경미
	헌금위원	한상익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폐쇄 공동체

... 나는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있는 봉쇄 수녀원을 방문한다. 그곳에는 23명의 수녀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 세계에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여 산다. 그들은 매우 가난하고 힘든 노동을 하며 산다. 생활 규율도 매우 엄격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행복하다. 그들은 자주 웃고 노래한다. 그들은 봉쇄되어 살지만 내가 보기에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삶은 안정됐지만 각 개인의 삶은 불안정하다.

... 몇 해 전,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공동체에 초대되어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공동체는 미국의 소외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200여명의 남녀가 큰 옛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입성이 초라했고 개중에는 머리를 물들인 '핑키'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이 매일 약 300명의 노숙자에게 무료 급식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어떤 이들은 약물중독으로, 어떤 이는 전과기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는 그 그룹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공동체가 그 도시의 큰 교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누구도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분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작은 공동체가 내게는 꽤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그들의 개방성에 놀랐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좁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 공동체는 공동의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그룹으로 그 나름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공동체는 자신이 섬기는 노숙자들의 불안을 떠안게 될 때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재정립해나갔다. ...

어떤 면에서, 그 두 공동체, 프랑스의 수녀원과 미국의 '예수의 사람'은 폐쇄적인 공동체다. 한 공동체는 명상생활에 몰입하고 있고 다른 한 공동체는 봉사생활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단혀있기에 자신들의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공동체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정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으며 사랑과 관용, 타자를 향한 연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소속감이 강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공동체는 지나치게 폐쇄

적이거나 엘리트주의로 빠질 수 있다. 그런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힘은 무엇인가? 구성원들은 각자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다. 그런 공동체는 클럽이 되어 자기 자량을 늘어놓거나, 서로 아첨하거나,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위안을 얻는 곳이 된다. 그들은 타자를 위해 열려 있다기보다는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것이다. 결국 그들의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

폐쇄적인 공동체는 종교나 치료 모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 다국적 기업, 병원, 학교 등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있다. 많은 조직에서 개인은 어떤 선의 말단에 서게 된다. 행동을 규제하는 규율이 있다. 모든 성공 지향적 공동체는 분명한 원칙과 비전,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다. 이데올로기를 가진 공동체도 있다. 그런 조직 밑에서 개인은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조직은 전적인 복종, 화합, 효율을 강조한다. 그것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힘을 획득하고, 이용하고, 유지하는 일과 맞물려있다. 여기서 임무는 박애주의에 의한 것이거나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초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은 각 개인의 성숙과 자유 혹은 타자에 대한 봉사보다는 좀더 강한 소속감과 일치, 연합을 요구한다. 그 그룹을 떠나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 그룹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폭도로 여겨진다.

폐쇄적인 공동체의 극단적인 예는 아마도 우리가 소종파라고 부르는 모임일 것이다. 소종파는 처음에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과 불안감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빠져든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자유와 자의식을 포기하면 그 그룹을 떠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밖에서 보면, 그들은 좀더 큰 외로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 빠진 것이다.

나는 일부러 소종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대부분은 소종파의 다소 극단적이고 지나친 표명들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 그러나 사회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무해해 보이는 소종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직장이 소종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만족스러운 급여를 받기 위해, 안전의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의 양심을 희생한다.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계 해야만 한다. 엄격함, 그룹에 대한 순응을 강조하는 것이 때때로 필요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좋은 공동체의 표지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한 사회를 이루었다는 이유로 개인의 성장과 창조성을 억압한다는 것은 그 결과에 비해 치러야 하는 값이 너무 크다.

■ 감사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Thanks to God

August L. Storm 사 Johannes A. Hultman 곡

문정선 역



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2.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3.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가 을 날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사랑 건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해
 축량 못 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해
 내일 의 희망을 감사 영원 토록 감사 해

International Rights Secured.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조병무 송양진 오진훈 노순옥 김희진 박홍재 정한구 왕영순 강순배
 곽상준 최경미 김일랑 이은옥 김필순 박창운 허정운 방민배근수
 김금순 배상순 권호진 손성현 안종일 정현주 임고운 정복순 방준
 김민화 정재정

월정헌금:

김미순 김승현 김수진 김종철 고영애 박범희 박미영 왕수명 윤성중
 김윤정 이동천 이유선 방극속 장재영 김재영 김지윤 임영 정경례
 백성래 이영우 정연희 무명

감사헌금:

정현성 유성민 김영순 박애순 정현숙 안종일 정현주 유병선 정연희
 무명

생일감사헌금:

박옥식

녹색꿈 헌금:

홍순구 안홍숙 최경미 이재문 김기석 김희우 양재성 임미심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장혜숙	정두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이은옥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박정숙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조병주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운	김정애	김정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최현옥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김혜권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방극속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김민화	조항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추수감사절** :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 헌금은 예배 중에 앞으로 나와 드립니다.
2. **찬양의 가을걷이** :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찬양대와 참빛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의 가을걷이'가 있습니다.
3. **환경수련회** :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수련회가 12일(금) 용인 심소재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4. **청파산행** : 이번 주 13일(토) 수리산으로 산행을 갑니다. 명학역, 성결대 방향 출구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모여 출발합니다.
5. **신앙실천** :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녹색가게에 기증하거나 필요로 하는 이에게 주십시오.

*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다음 주 : 갈릴리 속)

* 설거지 봉사 : 전충길 남창모 김기성 (다음 주 : 최경미 이수정 최재욱)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